

변증법 공부로 좋은 문헌들 (입문)

РАПП

■ 김나지움 논리학 입문 (G. W. F. 헤겔, 옹의 숲) / 중요도: **최상** / 난이도: **상**

헤겔의 김나지움 강의를 엮은 것으로, 《정신현상학》, 《논리의 학》, 《자연철학》의 내용을 초급자 수준에서 다룬 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앞의 세 저서를 읽기 전에 입문용으로 읽기 좋은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 누가 추상적으로 사유하는가? (G. W. F. 헤겔, 서광사) / 중요도: **상** / 난이도: **중**

추상적 사유와 구체적 사유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 짚막하게 논한 헤겔의 논문입니다. 그간의 형이상학적 사유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고, 형이상학을 질적으로 뛰어넘는 세계관의 수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사유, 즉 추상적 사유의 한계에 대해 세밀하게 논한다는 점에서, 추상과 구체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좋은 책입니다.

■ 기호 논리학 (벤슨 메이츠, 문예출판사) / 중요도: **상** / 난이도: **중**

명제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스토아 학파를 걸쳐 완성된 체계인데, 오늘날 부르주아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츠의 기호 논리학은 명제논리학과 그 지양발전인 술어논리학을 다룹니다. 형식논리학의 체계도 일정 알아야만 변증논리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식논리학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증법을 곧바로 공부하면 실생활에 변증법을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호 논리학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나왔지만 헤겔은 이미 《논리의 학》 제3권 제1편에서 기호 논리학에서 언급되는 체계를 (판단)과 (추론)장에서 다루고 그것의 한계를 논합니다.

■ 독일 관념론 철학 (니콜라이 하르트만 저, 서광사) / 중요도: **최상** / 난이도: **하**

하르트만이라는 관념론자가 지은 책입니다. 독일 낭만주의와 관념론 간의 교류사까지 합해서, 헤겔 철학의 범주를 매우 쉽게 설명해놓은 책입니다. 지만지에서 나온 발췌 번역이 아니라 서광사에서 나온 완전 번역본을 사실 것을 추천합니다.

■ 세계관과 변증법적 유물론 (문영찬 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중요도: **중** / 난이도: **최하**

입문자가 읽기 매우 쉬운 문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 세계관의 관점에서 현대 부르주아 철학을 구체적으로 비판한 부분 및 유물론과 관념론 사이의 투쟁사 서술 부분입니다. 후자에서 헤겔 철학 서술 부분은 헤겔 철학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서술해놓았습니다.

■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아카넷) / 중요도: **최상** / 난이도: **하**

헤겔의 철학적 고민은 소크라테스 이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고민을 계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헤겔의 변증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선행 고대 철학자들의 견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및 그와 관련된 주석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각주 번호도 써놔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哲學 (조요한 저, 경문사) / 중요도: **최상** / 난이도: **하**

왜 뜬금없이 아리스토텔레스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범주론에 대한 지식 없이는 헤겔 철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겔이 사용하는 범주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예비적으로 구성해놓은 적이 있는 것이고, 헤겔의 서술 방식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온 전통적 방식을 일정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학습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측면을 다루고, 또 서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다만, 한자어는 한글 병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한자에 약한 분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 야코비의 멘델스존 비판과 인격 신의 문제 - 스피노자 논쟁의 두 번째 국면을 중심으로 (남기호 저, 한국가톨릭철학회) / 중요도: **중** / 난이도: **중**

18세기 범신론 논쟁을 다루는 논문입니다. 헤겔 철학에서 무한과 유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한자와 유한자라는 범주와 관련된 논쟁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기 위해서는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선행 지식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에티카》에 대한 지식 없이 이 논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에티카 (강영계 저, 서광사) / 중요도: **상** / 난이도: **중**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왜 또 뜬금없이 스피노자냐고 하겠지만, 헤겔은 신(新)스피노자 학파였으며, 헤겔 철학은 스피노자로부터 영감을 받은 철학이기 때문에 《에티카》에 대한 지식 없이 헤겔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아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재론과 인식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논리학도 이해 못합니다. 헤겔의 《논리의 학》 서문과 서론, 그리고 각 장의 주석을 보면 아시겠지만, 헤겔 철학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경험론자들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이라는 성격도 존재합니다. 서광사에서 나온 2007년 개역판이 가장 유명한 번역서입니다.

■ 왜 유물론인가? (강대석 저, 중원문화) / 중요도: **최하** / 난이도: **최하**

변증법을 다룬 책은 아니지만, 근대 유물론의 발전사에 관한 정보를 일정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기계적 유물론을 다룬 대부분의 서적은 프랑스 유물론만 언급하는 데 비해 이 책은 독일 기계론적 유물론 및 독일 자코뱅의 사상도 다룹니다.

■ 철학대사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저, 동행) / 중요도: **최상** / 난이도: **하**

구 동독에서 나온 《철학대사전》을 번역한 책입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개념어 설명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입니다. 책 읽다가 어려운 용어 나오면 이 책 참조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 헤겔 (찰스 테일러 저, 그린비) / 중요도: 상 / 난이도: 하

캐나다, 미국에서 유명한 헤겔주의 윤리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헤겔의 정신철학, 논리학, 역사철학을 다루는데 서술이 난해하지 않아서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 헤겔과 변증법 (백훈승 저, 서광사) / 중요도: 상 / 난이도: 하

헤겔 변증법 발달사를 알 수 있는 뛰어난 책입니다. 서술은 헤겔의 저술에 비해서 훨씬 쉽게 되어있습니다. 단 백훈승 선생님은 관념론자인 동시에, 헤겔 철학의 전 측면을 관념론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헤겔 변증법 발달사를 이해하는 용도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헤겔 논리학 입문 (蘇坂眞 외 저, 한마당) / 중요도: 하 / 난이도: 최하

일본의 학자들이 저술한 헤겔 《논리의 학》 입문서입니다. 나열한 책들 중 가장 쉽게 서술되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다루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모든 편을 다 다루기는 하지만, 실제 《논리의 학》의 각 편에 존재하는 핵심 내용 중 절반을 날려먹었습니다—, 또 형해화된 서술이 많아서 변증논리학의 진수를 맛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열된 다른 책이 읽기 너무 힘든 수준이라면, 이 책부터 읽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단, 다시 강조하지만, 이 책에만 안주하면 헤겔의 변증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 헤겔 『논리의 학』 입문 (한스 라데마커 저, b) / 중요도: 상 / 난이도: 중

위 입문서와 달리 각 편의 전 내용을 다루며, 헤겔 변증논리학의 핵심을 잘 짚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물론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 헤겔의 정신현상학 입문 (스티븐 홀게이트 저, 서광사) / 중요도: 최상 / 난이도: 중

《정신현상학》은 주관적 변증법, 그중에서도 그 유명한 주인-노예 변증법이 등장하는 대표적 저술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헤겔 전공자마저 난해한 저술로 간주할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국내에 《정신현상학》 입문서, 해설서가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그중 단연 으뜸인 저서로 저는 영국 헤겔학회장인 홀게이트가 지은 《헤겔의 정신현상학 입문》을 꼽습니다. 평이한 서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정신현상학》에서 난립하는 개념어를 해설서 중 가장 쉽게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